

2015년 1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5,904,700	전월이월금	119,489
지 로	3,860,049	우리은행	10,902,622
국민은행	5,075,008	하나은행	1,020,002
조흥은행	140,009	신한은행	1,415,005
외환은행	817,500	제일은행	290,001
농 협	1,455,005	기업은행	265,000
우 체 국	75,010	지정기탁	470,0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3,482,65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1,362,730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30,0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58,750	약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2,125,95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950,57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600,000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 보육지원, 중병 치료 지원금	
교육비	967,49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350,000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2,426,63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5,504,770	잔액(이월금)	399,930

<쉼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9	1	2	28
베다니아의 집	1	1	0	2
벗들의 집	12	0	0	12
사랑의 집	12	2	3	14
마고네공부방	8	0	0	8



"당신들을 결코 중요하지 않는다. 중요은 비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길 것이다."
-피리테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인터뷰中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고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테러를 저지른 IS에 대한 중요와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테러조직들이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반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끔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보복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 지난 2001년 9월 11일이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격앙된 목소리와 논조들과는 달리 프랑스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모습은 오히려 잔잔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테러로도 깨뜨리거나 꺾을 수 없는 인간과 삶에 대한 숭고하고 견고한 신념입니다. 즉 악이 선을 결코 이길 수 없고, 중요은 결국 사랑과 용서 앞에서 그 힘을 잃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혐오사회라고 말합니다.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되니 피곤하고(피로사회), 피곤하니까 짜증과 화가 늘어가고(분노사회) 누군가에게는 화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아무한테나 낼 수는 없으니,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을 여기저기서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혐오사회) 결국 그 혐오의 대상들은 일상 안에서 딱히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약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 노인 혐오, 그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 습니다. 병자들과 이방인들,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혐오들까 지. 혐오하고 멀리해야하는 대상에 대한 목록이 규정되어 있었으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한 혐오사회였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혐오의 대상들을 당신의 관심과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병자와 귀신들린 사람들, 세 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중국에는 그들을 당 신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 미움과 혐오, 편협 함과 아집,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지는 않 은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 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16년 1월 후원미사는 22일, 2월 후원미사는 22일, 3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신체활동



소방대피훈련

3. 사랑의 집 소식

Carta dirigida a consulta Para los trabajadores.

Soy Margrit y quiero dirigirme a ustedes con el mayor respeto para Darles mil gracias por todo lo que hacen por los mujeres y niños que residimos en este país para un mejor vivir, espero en un futuro poder ser parte de esta linda fundación que requiere siempre de buenas personas para hacer crecer mas la ayuda a la gente que la necesita.

Muchas Gracias.

사랑의 집은 다문화 모자가정을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 계를 지원하고 퇴소한 뒤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쉼터로, 이 쉼터를 이용했던 베네 수엘라 여성(29세)이 퇴소하면서 남긴 감사편지입니다.

이주노동자 상담실에 드리는 편지

저는 마그리트라고 합니다.

이주여성들과 어린이들이(그의 자녀들이)

이 나라(한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의 뜻과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언젠가 저도 이 아름다운 뜻을 가진 사업에 참여(동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남미공동체 라틴아메리카 수호 성모님 대축일 행사



미사와 축하 공연

1531년 12월 9일, 멕시코시티의 작은 산 테페약에서 있었던 과달루페 성모 발현은 승천한 마리아가 최초로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대사건으로, 루르드와 파티마 발현보다 300~400년 앞섰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아즈텍인 600만 명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면서 라틴아메리카 복음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남미공동체가 지난 12월 13일 합정동 세계성체기념관에서 국내 거주하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을 초대하여 미사와 축하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5. 기부금영수증 안내

201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하신 기부금을 확인하여 2016년 1월초에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15년 안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가족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후원회원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우선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